

칼빈 언약사상의 본질적 개념과 신학적 위치

원 종 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 서론

언약신학은 종교개혁 후 개혁주의 신학에서 발전된 것으로 지금까지 개혁주의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종교개혁자 쾰링거가 성경적 언약신학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로¹⁾ 언약신학은 개혁주의의 중요한 신학사상으로 자리 잡았다.²⁾ 그러나 칼빈의 언약신학의 내용과 그가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발전에 끼친 역할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신칭의를 통하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루터가, 비록 은혜언약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쌍무성과 조건성이 보이는 언

1)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는 언약관계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성경적 사상이고, 그 당시 여러 사람들 사이에도 표현되었지만, 쾰링거가 처음으로 신·구약 사이의 언약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발전시켰다. Jack Warren Cottrell, "Covenant and Baptism in the Theology of Huldreich Zwingli," (T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71), 374.

약개념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의 입장이 언약의 쌍무적이고 계약적 성격으로 발전하며 쾰링글리와 불링거로 이어지는 스위스 개혁주의 언약신학과의 동조여부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³⁾

이런 칼빈의 언약신학에 관한 논란 가운데 이 논문은 칼빈의 언약신학이 그의 구원론 구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이것은 칼빈의 언약신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칼빈의 언약신학이 그의 전체적 신학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가 어떠한 의미로 언약신학을 사용했는지를 탐구하여 그의 신학에 나타난 언약신학의 본질적 내용과 위치를 찾아보려고 한다.

2) 성경적 언약사상은 종교개혁 때에 개혁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터는 언약사상을 거부했고, 언약사상의 시작은 취리히의 쾰링글리였다. 쾰링글리가 성경적 언약개념을 소개했다면, 그것을 발전 시키고 후세들에게 영향을 남긴 사람은 그의 후계자 불링거였다. 취리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쾰링그리와 불링거는 1525에서 1527년 사이에 언약개념을 소개했다. 취리히에서 언약개념은 당시 재세례파(Anabaptists)와 유아세례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재세례파의 유아세례 거부에 대항하여 쾰링글리는 유아세례를 인정하며 그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 쾰링글리는 유아세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관계의 외적 징표(outward sign and seal)라고 말했고, 유아는 하나님과 그 유아의 부모가 이미 맺은 언약관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유아세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부모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형성됨으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쾰링글리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구약의 언약개념과 할례는 근본적으로 신약에서도 계속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Ulrich Zwingli, *Antwort uber Balthasa Hubmaiers Taufbuchlein*(1525), in *Corpus Reformatorum* 91(Leipzig, 1915), p. 641. Cf. David Zaret, *The Heavenly Contract: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Pre-Revolutionary Puritanism*(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p. 130-131.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두드러졌던 것이다. 그러나 쌍무적(bilateral) 계약의 의미는 쾰링글리에게 없었고, 이것은 불링거에게서 나타났다. 쾰링글리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이란 인간이 의무 조건인 믿음을 갖춤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즉, 쾰링글리는 믿음이 구원을 위한 언약의 조건이라는 표현은 피했다. J. Wayne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0), p. 16. Cf. Gottfried W. Locher, "The Shape of Zwingli's Theology: A Comparison with Luther and Calvin," *Pittsburg Perspective* 7 (June 1967), p. 22.

2. 역사적 상황

16세기 종교개혁 상황에서 칼빈에게 언약사상은 쾰빙글리처럼 유아세례를 뒷받침하며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상적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칼빈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중심이 된다. 이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이 언약은 단순한 일대일의 상호 계약이 아니다.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근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언약 하에 구약 선조들에게 주셨던 율법들도 신약에 살고 있는 믿는자들에게 적용된다.⁴⁾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제사법은 제외하고 말이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됨을 가르쳤다. “모든 선조들과 만들어진 언약들은 본질과 실제에

3) 릴백은 칼빈의 언약신학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을 4가지로 분류한다: (1) 하바드의 청교도 학자 Perry Miller, 세대주의자 Fred Lincoln와 Charles Ryrie, 그리고 신학계에 거장들인 Heinrich Heppel, Charles McCoy, James Orr 등을 중심으로한 칼빈에게 언약신학이 없다는 입장 (2) 청교도 역사가 Everett Emerson, 미국 근본주의 역사 전문가인 George Marsden, 청교도 학자 Jens Moller와 같이 칼빈은 언약신학을 불완전한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입장 (3) 청교도 학자 Leonard Trinterud, Heinrich Bullinger 전문가인 Waynes Baker와 Charles McCoy, Joseph McLelland 등을 중심으로 칼빈의 신학적 체계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완숙한 언약신학과는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 (4) 개혁주의 신학자 Anthony Hoekema, Vanden Bergh, H. Van Vegt, Peter Lillback 등을 중심으로 칼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언약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1), 13-28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일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최근에 피터 릴백(Peter A. Lillback)은 엄청난 분량의 칼빈 연구를 통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칼빈에게서도 쾰빙글리-볼링거 전통의 언약의 쌍부성과 조건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주의 언약신학 전통의 초창기 발전에 칼빈의 공헌이 지대함을 설득력 있게 밝혔다. Lillback은 상당히 많은 칼빈의 원 자료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용하여 이것을 밝히고 있다. Lillback, *The Binding of God*, 126-304를 보시오.

있어서 우리의 것과 꼭 같아서 이 둘은 실지로 하나”라는 것이다.⁵⁾

칼빈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증시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측면이며, 곧 성화와 윤리의 강조로 연결된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거룩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 언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맺으신 언약관계는 근본적으로 은혜언약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약속하신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으로 언약관계의 기반을 이루고 계신다. 인간의 거룩과 윤리적 책임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언약 하에서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⁶⁾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이다. 성례도 형태는 변형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하여 그 의미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쾰빙클리 가르침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칼빈은 물론 그의 언약사상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만 말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차이점도 있음을 지적한다. 구약의 율법은 은혜언약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도 윤리적 의미로 적용되지만,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시각에서 볼 때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로 아직도 문자적인 의미

4)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율법과 교리에 의하여 태초로부터 그의 백성으로 양자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다른 경전의 법을 가진 적이 없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10:1. 다음부터는 Inst.로 표기될 것임.

5) *Inst.* 2:10:2.

6) *Inst.* 3:17:5.

를 가지고 있고, 신약시대에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됨으로 영적인 의미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이다.⁷⁾ 구약은 언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내었지만, 신약은 하나님 언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언약사상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확고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다.⁹⁾ 루터는 종교개혁 초기에 로마 천주교와 투쟁하며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현저하게 드러냈던 것에 반하여, 칼빈은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칼빈은 이 연결성 구축을 언약사상을 통하여 했고, 이것은 재세례파의 도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3.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이제 칼빈의 언약사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칼빈의 성경주석을 중심으로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를 조명하여 칼빈이 기본적으로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밝힌다.

3.1. 아담과 노아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아담과 노아에게 먼저 언약을 세우셨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생명나무와 무지개를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그들의 불멸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 이 보증물의 역할은 그들이

7) *Inst.* 2:11:8.

8) *Inst.* 2:11:1, 4, 6.

9) Jens Moller, "The Beginning of Puritan Covenant,"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14 (1963), 46-67, 특히 p.50을 보시오.

그 열매를 먹으면 불멸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었다(창 2:9; 3:22). 또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하여 무지개를 세우셨는데, 이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의 증거물이었다(창 9:13-16). 칼빈은 생명나무와 무지개가 아담과 노아에게 성례의 역할을 했다고 가르친다. 생명나무 자체가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불멸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무지개도 그 자체가 홍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에게 표징을 새겨 놓으신 것이다. 이 새겨진 표징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인(印)이 된 것이다.

나무도 항상 있었던 나무이고 무지개도 역시 예전에 있던 무지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형식이 새겨졌고, 그리하여 과거에는 없던 본질을 새로이 지니게 된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담 및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징표로 생명나무와 무지개를 세우셨으며 그 징표를 성례로 이해하는 것이다.¹⁰⁾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포함 한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를 첨부하셨다. 칼빈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확신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언약에 보증을 첨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의 표현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¹¹⁾ 칼빈은 은혜 언약의 점진적 성격을 잘 지적한다. 언약은 아담과 노아에게 언약의 징표와 함께 주어졌다.¹²⁾ 그러나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낸다.¹³⁾

10) *Inst.* 4:14:18.

11) John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translated by John King (Albany: AGES Software, 1998), Gen. 9:12. 다음부터는 *Comm. Gen.*으로 표기될 것임.

12) *Inst.* 4:14:6, 18.

13) *Inst.* 3:21:7, *Comm. Gen.* 12:3; 17:1ff.

3.2. 아브라함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그 언약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밝힌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신다. 아브람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신뢰와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체결을 위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신다.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고 그는 열국의 아버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사를 위하여 아브람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순종이었다. 칼빈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구절을 순종으로 설명한다.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약의 조건으로 명령하신 것이다.¹⁴⁾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시는 언약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관계를 유추한다. 하나님은 교회와 언약관계를 맺으신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에 근거하여 교회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양자 삼으신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위치를 얻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축복의 약속에는 조건이 따른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¹⁵⁾

칼빈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행복한 삶의 약속이 첨부된 은혜의 약속” 이고 또 하나는 “의로움을 신장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브람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실 수 있으셨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

14) *Comm. Gen.* 17:1.

15) *Comm. Gen.* 17:1.

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아브람과 상호적 언약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아브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의로움의 신장이 그의 삶과 마음에 형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게” 하신 것이다.¹⁶⁾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의 징표를 두셨다. 그것이 할례이다. 칼빈은 할례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의 육체에 새기신 것으로 보며 그것은 양자삼음의 준엄한 기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언약이 기억되고 축하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칼빈은 할례를 신약시대의 성례로 본다. 성례는 외적 고백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양심을 연결하는 중재적 역할을 하는 서약이다. 성례가 가시적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의 형상인 것처럼, 칼빈은 할례가 언약의 가시적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환유 (metonymy, synecdoche)의 방법으로 나타내신다고 본다. 즉, 할례만 보면 언약의 총체적인 성격을 다 보는 것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고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동의가 있는 것이다.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는 자가 성례의 사용을 망령되게 하는 것처럼, 할례도 준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인 믿음과 순종의 인간 쪽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언약은 유지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준엄한 징표이고 또한 준수하겠다는 서약인 것이다.¹⁷⁾

칼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을 주장한다. 비록 이 언약의 서약이요 외적 징표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중단되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표현방법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영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례가 할례를 대치한 것이다. 신약시대의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의미를 가진 세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할례

16) *Comm. Gen 17:2.*

17) *Comm. Gen 17:9.*

를 받은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¹⁸⁾

3.3. 모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관계로 역사적 흐름의 발전을 맞이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는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기록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공식적 절차를 밟는다. 칼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단지 감사와 성공을 위한 기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 비준에 따르는 의식으로 보았다. 이것은 언약의 안전과 성결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이미 오랜기간 통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받은 제단에 붓고 나머지 피는 모세가 언약서를 읽고 백성은 그것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한 후에 백성에게 뿌렸다. 칼빈은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비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약의 비준은 피로 인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⁹⁾

칼빈은 언약 비준을 위하여 사용된 피에 대하여 “언약이 확인되고 새워지는 매개체”라고 말한다. 모세가 단과 백성에게 뿌린 피에 대하여 칼빈은 옛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언약은 예표와 그림자의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을 걸쳐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

18) Comm. Gen. 17:13.

19)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 translated by Charles William Bingham (Albany: AGES Software, 1998), Ex. 24:5-8. 다음부터는 *Comm. Ex.*로 표시함.

는 것이다. 모세가 언약 비준을 위한 의식에서 사용한 피는 앞으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연속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울러 피의 인침이 모세 당시에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의 심령에 언약의 준엄성을 새기는 역할을 한 것 같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칼빈은 신약시대에도 지속되는 언약의 일관성과 영원성을 가르친다.²⁰⁾

3.4. 예레미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이루고 구약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예언하신다. 왜 새 언약인가? 칼빈은 언약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의식하며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우린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첫 언약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항상 일관성이 있으시다. 그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바꾸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확증하셨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만드신 언약에 의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롭거나, 상충되거나 또는 다른 언약을 만드실 수 없으시다. 우리 구원의 소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후손 이외에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

20) “하나님의 약속이 그 힘과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침이 항상 우리 앞에 지켜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구원의 소망의 언약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통하여 그가 곧 흘리실 피를 언약의 피로 명령하신 것이다.” 저자 번역, *Comm. Ex. 24:5-8*.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드신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²¹⁾

그러면 무슨 이유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언약의 본질과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형태 또는 양식이 바뀐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변하여 나타난 것은 곧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그리고 모든 외적 가르침의 방법이다. 그러나 언약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내용인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율법에 완전한 삶의 규칙을 포함시키셨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보이셨고, 예표들과 모형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났고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난 것이다.²²⁾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칼빈은 하나님이 율법 하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지던 것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을 때 새 언약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예표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을 실지로 완성시키셨을 때 새 언약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성령님을 통한 중생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또한 새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글자인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귀만 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꿰뚫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다.²³⁾ 새 언약이 율법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조상들과 맺은 언약처럼 하시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런

21)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Prophet Jeremiah*, vol.2, translated by John Owen (Albany: AGES Software, 1998), Jer. 31:31. 다음부터는 *Comm. Jer.* 로 표기함.

22) *Comm. Jer.* 31:31.

23) *Ibid.*

식으로 율법과 분명히 구별하신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율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²⁴⁾

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가? 새 언약이 필요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나? 구약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나? 그렇다.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자만심이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옛 백성들에게 손을 펼쳤을 때 첫 언약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의 해방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했다. 사실, 그들은 불경건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지 않는다면 구원의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의 자만심이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선지자가 율법이 그들에게 여전히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필요성이 여기 있었다. 아니면 그들은 멸망했을 것임에 틀림없다.²⁵⁾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었나? 바울이 율법의 연약함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 율법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율법이 경멸의 대상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율법은 충분했다. 문제는 백성들의 경솔과 불충성에 있었다. 율법이 연약하고 비효력적이라고 말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는 서약한 믿음을 준수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²⁶⁾

24) *Comm. Jer.* 31:32.

25) *Ibid.*

26) *Comm. Jer.* 31:32.

3.5.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미 약속하신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질 수 없는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하여 피를 영적으로 마심으로 이 언약이 확증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쳐지셨기에 가능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를 영적으로 먹는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영생의 약속과 믿음의 의무이다. 이것은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 관계이다.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다. 옛 언약의 모형을 극복하여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대치한 것으로 조상들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²⁷⁾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찬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주는 성례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합하기 위하여 피를 쏟으셨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그 피를 영적 의미로 마신다. 이 화합에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우리는 언약을 확인하며 동시에 언약의 확증적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씀과 성찬 사이에는 관련이 있고, 주님의 언약은 성례에 포함되어 있다. 언약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양심은 구원의 확신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외적 상징이 아니고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다.²⁸⁾

27) John Calvin, *Commentary on Matthey, Mark, Luke*, vol. 3,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Albany: AGES Software, 1997), on Mark 14:24.

3.6. 성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신다(창 6:18, 9:9, 17:2). 그리고 성례를 언약의 징표라고 부르신다.²⁸⁾ 이 외적 징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효력을 발휘함을 말한다. 우리가 마시는 죽음의 잔을 “그의 피의 언약”(눅 22:20, 고전 11:25) 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비준한 언약을 갱신 또는 지속하는 것이다.³⁰⁾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것이라고 칼빈은 가르친다. 우리 믿음의 약함을 아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경건의 상호적 증거를 가지고 외적 징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다.³¹⁾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생겨나고 세워지고 확정되었어도 징표인 성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왜 이러한 언약의 징표가 필요한가? 성례가 하나님 말씀의 신뢰성을 우리 심령에 더 확신시키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언약한 육신에 속해있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이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개인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손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며 성례를 “가시적 말씀”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나타나고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의 눈앞에 보이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³²⁾

28)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Albany: AGES Software, 1998), on 1Cor. 11:25.

29) *Inst.* 4:14:6.

30) *Inst.* 4:17:1.

31) *Inst.* 4:14:1.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여 징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 견고하고 분명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더 좋은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모든 방면에서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고 마침내 무너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자비로우신 주님은 무한하신 친절하심 가운데 자신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셨다. 우리 인간은 항상 땅에서 기어다니고 육신에 붙어있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지 않음으로 주님은 이 세상적인 요소들로 우리를 당신에게 이끄시는 것이다. 이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 앞에 영적 축복의 거울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 영혼이 육신에 붙어있음으로 그는 영적인 것들을 가시적인 것들 하에 분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는 물질적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³²⁾

성례는 또한 신비적인 내면적 진리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임을 칼빈은 강조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에 맞추어서 그것의 모습과 형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성례를 통하여 보증과 징표를 남겨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익숙한 비교를 통하여 신비스러운 내적 진리가 우둔한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다. 즉, 빵과 포도주가 육신적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혼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양육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적 축복의 목적을 이해한다. 주님의 몸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먹는 것이다. 먹음으로 우리 안에 그 유일한 희생의 사역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피는 우리의 영구한 마실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³⁴⁾

32) *Inst.* 4:14:6.

33) *Inst.* 4:14:2.

34) *Inst.* 4:17:1.

우리는 칼빈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해한 언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인간의 순종의 반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한 확증을 위하여 아담에게는 생명나무를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를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언약이다. 은혜언약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순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세우셨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영원성을 가진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은 곧 모세를 통하여 비준되고 피뿌림의 징표로 재확인된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뜨렸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새 언약을 계시하신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비준되고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징표로 성찬이 제정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확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을 지켜나아가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의지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언약사상은 칼빈의 신학 구조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칼

빈의 언약개념이 당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유아세례를 수호하고 신·구약 간의 관계를 변증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칼빈 언약개념의 중심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언약개념이 그러한 내용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칼빈의 언약개념은 그의 구원론과 핵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에 입각하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영원한 작정에 입각하여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며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그 언약의 내용에 결속시키셨다.³⁵⁾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당신의 피조물에게 연합시키시는 행위이다. 칼빈이 칭의의 출발인 죄사함을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면 그의 언약개념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말한다: “죄사함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나 결속도 없다.”³⁶⁾ 하나님은 죄사함을 통하여 인간을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도에 자신을 스스로 위탁하신 것이다.

칼빈은 언약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bond)”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언약의 결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통하여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그 상호적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다.³⁷⁾ 칼빈에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

35) *Comm. Gen.*, 17:9.

36) *Inst.*, 4:1:20.

속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위하여 백성을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것이다.³⁸⁾

기독교강요 3권에서 칼빈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주신 여러 유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³⁹⁾ 칼빈은 강요 1권과 2권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 낸 온갖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3권에서 이렇게 귀한 축복과 유익들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아무리 귀한 축복이라도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조명하는 것으로 칼빈이 구원론을 다루는 방법이다. 기독교강요 3권은 이와 같이 구원론을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가를 다룬다. 그리고 강요 3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인 예정론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인간 개인의 구원을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셨다는 것이다.

칼빈의 언약개념은 그의 예정론과 관계를 맺고 있다. 칼빈의 예정은 이중에 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 되었고, 다른 사람은 멸망으로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떨어진 인간 중 어떤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 하셨으며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어떻게 되게 하실 것인가를 놓고 영원한 작정을 하셨으며 그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 스스로와 언약하셨음을 말하고 있다.⁴⁰⁾

37) John Calvin,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 and trans. Benjamin W.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0), 45.

38)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Haggai 2:1-5.

39) *Inst.*, 3:1:1.

칼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며, 이 생명의 언약은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지지도 않고 정해진 사람들 중에도 동일한 반응이 있지도 않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의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¹⁾ 그 과정은 외형적으로 언약관계를 맺은 집단적 하나님 백성과 선택받아 예정된 자들이 언약을 지켜 나아가는 여부의 다양한 국면들을 포함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양상이 단계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음을 주시한다. 비록 궁극적인 하나님의 예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은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다. 역사적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공동체로 선택하시고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에 입각한 구원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다.⁴²⁾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하나 됨을 공포하시는 언약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징표까지 주셨다. 할례이다. 하나

40) "We call predestination God's eternal decree, by which he compacted with himself what he willed to become of each man. (predestinat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For all are not created in equal condition; rather, eternal life is foreordained for some, eternal damnation for others. Therefore, as any man has been created to one or the other of these ends, we speak of him as predestined to life or to death." *Inst.*, 3:21:5.

41) *Inst.*, 3:21:1.

42) *Inst.*, 3:21:5.

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구원과 본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칼빈은 주시한다. 이것이 하나님 선택의 두 번째 단계이다. 하나님 선택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었다. 사실상 그들과 집단적으로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집단적으로 맺으신 언약에 나타난 “일반적 선택(general election)”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일반적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더불어 중생의 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주신 유익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신 개인들에게 돌아갈 유익의 모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⁴³⁾ 언약이 영구히 지켜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다. 칼빈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영적 후손이 있음을 말하며 그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영구히 언약이 지켜지고 영생으로의 구원을 보장 받은 자들임을 말하고 있다.⁴⁴⁾

5. 인간의 반응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적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의 언약이 선포되게 하셨다. 칼빈은, 사

43) *Inst.* 3:21:7.

44) *Ibid.*

실적으로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선포된 사람들 중에도 같은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니라도 말한다. 항상 같은 반응도 아니고 그 반응도 또한 강약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⁴⁵⁾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 반응의 다양성은 언약 내용의 구체적 전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인간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였고 그 전달 방법은 설교이다. 칼빈이 여러 곳에서 “생명의 언약(covenant of life, Inst. 3:21:1),” “영생의 언약(covenant of eternal life, Inst. 3:21:7),” “의의 언약(covenant of righteousness, Inst. 3:14:18),” “자비의 언약(covenant of righteousness, Inst. 3:14:18)”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서 발원한다.⁴⁶⁾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 생명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설교로 확인이 되는 것이다.⁴⁷⁾ 칼빈은 “생명의 언약이 선포된다(covenant of life is preached)”는 표현을 사용하며 결국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설교라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르심(설교)은 교회의 사역이다.⁴⁸⁾ 칼빈은 교회의 징표를 말씀과 성례로 본다. 말씀은 언약의 선포이고, 성례는 언약의 징표인 것이다. 교회는 이 두 가지 핵심 사역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하고 확증시키어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근원으로 각 개인과 맺으신 언약을 교회의 사역인 말씀(설교)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통하여 당신 언약의 수호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다.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적인 방편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예정

45) *Ibid.*

46) *Inst.* 3:21:5.

47) *Inst.* 3:24:1.

48) *Inst.* 4권.

하시고 영생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언약이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입각하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언약 안에서 행해야 할 역할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먼저 자신을 스스로 인간에게 결속시키셨고⁴⁹⁾, 인간도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결속되어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결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고, 인간의 결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인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인간을 당신 자신에게 결속시키신 것이다.⁵⁰⁾ 인간이 하나님에게 결속되어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언약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 책임으로, 율법적 차원의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의로움도 이 말씀에 기초한다. 우리는 그릇된 양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의 미궁으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심정으로 은혜 가운데 그런 우리를 모아서 언약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연합시키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는 거룩함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 거룩함에 대하여 주의 를 시킨다. 이 거룩함은 율법적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거룩함이 아니라 그럼으로 말미암아 쟁취하는 스스로의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약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거룩함을 주입받고

49) *Comm. Ex.* 6:5; *Comm. Jer.* 33:8.

50) *Inst.* 4:14:19. 이 결속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속되어 있음으로 더 감사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많은 좋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언약으로 인도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alvin, *Commentary of the Twelve Minor Prophets*, on. Malachi 2:4.

그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⁵¹⁾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은혜 언약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의무 (obligation)”와 “임무(duty)”아래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의 순종이다. 모형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이것이 어떠한 순종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이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여부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감사할지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며, 항상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며 경배하며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은혜언약에 입각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임무이다.⁵²⁾ 상호적 언약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인간은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약속을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에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선지자의 시대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⁵³⁾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을 위한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언약의 내용에 반항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

51) *Inst.* 3:6:2.

52) *Inst.* 3:17:6.

53) *Comm.* Jer. 14:22.

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말하는 은혜언약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언약은 출발부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약은 쌍방이 자유로운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영원히 그렇게 남는 것이다.⁵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언약에는 언약의 확인을 위한 서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약은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일종의 계약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댓가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악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이 세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가 들어가 있는 언약의 내용에 죄사함과 성화의 영이 포함되어있음과 동시에, 칼빈은 죄사함의 요청과 성화를 위한 도움의 호소도 함께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⁵⁵⁾

인간의 반응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 축복의 약속도 엄숙한 약속으로 인간에게 순종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책임적 성격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축복의 내용인파 동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시겠다는 책임의 내용이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책

54) *Inst.*, 3:17:5.

55) *Inst.* 4:13:6.

임의 내용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위에 서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 때문이다.⁵⁶⁾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언약적 반응인 거룩함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한다.

그러면 언약의 조건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룩함과 순종이 언약이 요구하는 행위의 기준에 달하는 것인가? 우리가 언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완전하다는 말인가? 칼빈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적인 완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선행을 수용하신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양자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낳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새 피조물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인 믿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까지도 받아드리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받아드리실 때에는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에 인간의 행위 그 자체는 부족해도 관대함으로 받으시는 것이다.⁵⁷⁾

믿는 자의 선행은 그 선행 자체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선행은 선한 것이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칭의와 성화는 은혜 언약의 불가분하고 동시적인 유익이다. 더욱이 은혜 언약은 그 조건으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포함한다. 율법에 대한 완전

56)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s (Albany: AGES Software, 1998), on Isaiah, 37:23. 다음부터 *Comm. Isa.* 로 표기함.

57) *Inst.* 3:17:5.

한 순종이 은혜언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동시에 죄사함과 성화의 영이 포함되어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리고 은혜언약에서 우리가 하는 약속은 용서의 간구와 도움을 요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⁵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며 은혜 언약의 율법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 이신칭의 가르침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라도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불결한 것으로 묻어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의하여 그것이 불쾌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에게 대하여 분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행위를 공의로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와 친절로 보신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마치 완전히 순결한 것처럼 수용하신다. 그런 이유로 비록 그들이 공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무한한 유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얻는 유익까지 말이다. 영생은 믿음만의 댓가이고 이 세상의 축복은 선행으로 얻는다는, 믿음과 선행의 댓가에 대한 구분을 칼빈은 받아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함(선행)에 대한 댓가를 믿음의 댓가와 같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하나님의 “수용적 은혜”로 말미암아 칼빈은 믿는 자의 영원한 상급이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열심있는 노력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⁶⁰⁾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 관대함을 베푸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스스로 온전히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그리고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심으로 언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⁶¹⁾

칼빈은 인간 행위의 하나님 수용을 이신칭의와 합류시킬 수 있었다. 이 수

58) *Inst.* 4:13:6.

59) *Inst.* 3:15:4.

용은 이신칭의에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종속적인 것이기에 이신칭의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다. 칼빈은 그의 언약개념에 입각하여 믿는 자의 부족한 행위(선행)를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6. 결론

우리는 칼빈이 가르친 언약신학의 본질적 내용과 그의 신학적 구도에서 언약신학의 역할과 그것이 차지하는 신학적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에 입각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리시기로 예정하시기로 스스로에게 언약하셨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신다. 궁극적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개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하여 택한 받은자와 맺으신 생명의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

60) 칼빈은 중세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선행의 공로 개념은 명백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위(선행)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함을 인정하는 중세 유명론 신학자들의 언약 개념은 수긍했다. 중세 유명론 신학자들도 사람들의 행위 자체를 순수히 하나님께서 공로로 인정하지는 않으신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행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죄와 타락의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그 부족한 행위를 은혜를 베풀어 인정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드려진다는 중세 유명론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옳다고 칼빈은 생각한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대함을 “부서에”와 “수용적 은혜”라고 부른다. *Inst.* 3:17:15. 비록 칼빈이 중세의 언약개념을 일부 수용했지만, 중세신학자들과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관대함을 베푸는가 하는 것이었다. 중세신학자들은 하나님 관대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이신칭의와 죄사함을 가르치지 않았다. 부족한 행위가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에 의하여 인정을 받자면, 이신칭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위가 하나님에게 받아드려지자면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통하여 행위마저도 묻어있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Inst.* 3:17:3.

61) Calvin, *Commentary on Matthew, Mark, Luke*, vol. 2, on Luke 17:7-10.

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원한 작정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나,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언약관계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면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에 입각하여 세우신 은혜언약에도 상호성과 조건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은혜언약을 맺으실 때에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명령하셨다. 이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언약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언약의 상호성과 조건성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났다. 할례를 징표로 가지적이고 집단적으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여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고 중생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쳐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지속되었다.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언약관계는 지속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세례 받아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지만 언약의 조건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구약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생의 영을 부여하시어 그들의 언약적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시키신다.

언약적 반응인 거룩함과 순종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불완전함으로 그 자체로는 언약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성화가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이다. 즉, 성화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는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언약의 성격인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언약(covenant),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 칼빈의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 of Calvin), 요한 칼빈(John Calvin)

Baker, J. Wayne.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0.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Translated by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_____. *Commentary on Genesis*. Translated by John King. Albany: AGES Software, 1998.

_____. *Commentary on Matthew, Mark, Luke*. Vol. 2, 3.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Albany: AGES Software, 1997.

_____.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 Albany: AGES Software, 1998.

_____. *Commentary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Vol. 2. Translated by

- Charles William Bingham. Albany: AGES Software, 1998.
- _____.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Translated by William Pringles. Albany: AGES Software, 1998.
- _____. *Commentary on the Prophet Jeremiah*. Vol.2. Translated by John Owen. Albany: AGES Software, 1998.
- _____. *Commentary on the Psalm*. Vol. 2. Translated by James Anderson. Albany: AGES Software, 1998.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10:1.
- _____.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lated by Benjamin W.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0.
- Cottrell, Jack Warren. "Covenant and Baptism in the Theology of Huldreich Zwingli." T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71.
- Lillback, Peter A.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1.
- Locher, Gottfried W. "The Shape of Zwingli's Theology: A Comparison with Luther and Calvin." *Pittsburg Perspective* 7 (June 1967).
- Moller, Jens. "The Beginning of Puritan Covenant."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14 (1963), 46-67.
- Zaret, David. *The Heavenly Contract: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Pre-Revolutionary Puritanism*.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The Nature and Place of John Calvin's Covenant Theology

Jong Chun Won(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that Calvin's covenant theolo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his soteriology. As the paper explores Calvin's covenant theology through his commentaries and the Institutes, it searches the fundamental meaning in his use of the covenant and its locus in his theology.

According to Calvin, God made a covenant with Himself that He would save the elect and forsake the others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based on His eternal decree. He also made a covenant with the elect that He would be their God and they be His people. Although this covenant is ultimately fulfilled in the individuals, God demonstrated this with the type through His covenant with the Old Testament Israelites. God gave grace to His people and established covenant with them according to His sovereign will.

In the type, however, there is either blessing or curse based upon the people's faithfulness to keep the covenant. According to Calvin, there is mutuality and conditionality in God's covenant of grace as we see in His covenant making with Abraham. God blessed Abraham but also demanded holiness. Based on this condition God made His covenant with the descendants of Abraham. The mutuality and conditionality of the covenant are shown in the type of the covenant made with Israelites. Circumcision was

given as the visible sign of the covenant, but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was maintained and blessing was not given to them. Only the remnant who kept the covenant received God's blessing as they were the elect and the recipient of the spirit of regeneration.

Calvin teaches that God's covenant of grace with the Israelites continues in the New Testament. Old Testament circumcision given as the sign of the covenant is connected to the baptism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covenant with God is maintained. As with Old Testament Israelites, those who have been baptized in the New Testament church will be taken away from the blessing of God if they cannot keep the holiness, the condition of the covenant. They are ultimately those who have not been elected. But like the remnants of the Old Testament, the elect keep the covenant.

Calvin teaches that God made an eternal decree to adopt certain individuals for their salvation and to forsake other for eternal damnation. This is God's predestination of the individuals for salvation and reprobation. With the elect God made a covenant and poured the Spirit of regeneration to fulfill His predestination through their response to the covenant. The holiness and obedience as our covenant response cannot be perfect in themselves before the justice of God. But by His grace the imperfect sanctification is accepted by God's liberality. In other words, the sanctification is inseparable to justification. Thi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the covenant God has made with His people. To Calvin, covenant is the means to fulfill God's predestination for salvation in Christ.